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와 처벌, 피해 대처방법 -



딥페이크를 악용한 집단 디지털 성범죄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하여 **집단으로 지인능욕을
제작,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따른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있습니다.



지인 능욕: 타인의 사진에 성적 이미지, 영상 등을 합성 하는 것

딥페이크 포르노: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시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것

사례 #1

학생 A는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하였다고 진술

“

A는은 지난해 말 여학생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음란물과 합성, 또래들에게 공유하였으며, 그 후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8)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출처] 2024.08.26 연합뉴스기사



관련법령 처벌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는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되며,
제작자, 배포자 및 이용자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학생 C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를 사용해 불법 음란물을 판매·유통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구매희망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2024.04.06 국민일보



관련법령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이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학생 P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른바 유포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

1만원을 송금해 또래 여학생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영상을 판매할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한 뒤 타인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물 영상을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출처] 2024.07.17 조선일보



관련법령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도움 요청 기관



피해 신고

- 긴급신고 112 / safe182.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3번 / www.kocsc.or.kr



피해 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http://d4u.stop.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여성긴급전화 1366

신종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상담 기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상담 : 02-735-8994

온라인 : d4u.stop.or.kr

✔ 시·도별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대전	대전YWCA통합상담소	042-255-0078	djywca.or.kr/ds1_5.htm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044-866-1366	sejongsts.or.kr
충북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043-267-3006	i-web.kr/cjwomen
충남	아산 해뜰통합상담소	041-547-5004	woorifamily.net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위험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기 바라며,
부디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상을 제작·유포는 물론,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송대학교 인권센터